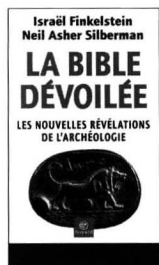


베일이 벗겨진 성서 - 고고학에 의한 新목시록



원저 《베일이 벗겨진 성서》 LA BIBLÉ DÉVOILÉE
 저자 Israël Finkelstein, Neil Asher Silberman
 출판사 바이드 출판사

인류 최고의 베스트셀러이자 롱셀러는 두말 할 것 없이 성서이다. ‘신의 말씀’으로 알려진 이 걸작은 그러나 인간과 신의 연애사이기도 하다. 신앙의 일에 인간(유대인)의 역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다. 이번에 프랑스에서 출간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베일이 벗겨진 성서》는 성서를 순전히 인간의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고고학자인 저자들은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등 성서의 주요 무대가 되고 있는 지역에서의 고고학적 발견과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성서를 재해석함으로써 우리가 풀어왔던 여러 질문들에 대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성서는 언제 그리고 왜 씌어졌는가? 우리는 초기 히브리 족장들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유일신에 대한 믿음은 언제부터 등장했는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약속의 땅을 차지했는가? 그리고 예루살렘은 과연 고대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는가?

기원전 7세기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서는 여러 고고학적 연구를 거듭한 결과 요소요소에 역사적 오류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가령 초기 히브리 족장의 이야기에 많이 등장하는 등짐을 지고 사막을 건너는 낙타들은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다. 낙타를 운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히브리 족장들의 시대보다 한참 후인 기원전 11세기경에야 비로소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여러 지명들을 조사한 결과 그 이름들은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원전 13세기보다는 성서가 씌어졌을 당시의 이름과 더욱 공통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것에서 시작하여 저자들은 성서의 여러 사건 및 배경들이 과연 사실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파헤쳐 드러낸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종교가 유일신 숭배 신앙이라고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유일신 신앙에 집착한 것에는 정치적 배경이 있다.

원래 히브리에는 두 개의 왕조가 있었다. 북쪽 지방을 통치했으며 더 융성하고 문화가 발달했던 이스라엘 왕조. 그보다는 덜 활발하게 활동하던 남쪽의 유다 왕조. 이스라엘 왕조의 숭배 신은 엘로임이었고, 유다의 숭배 신은 야훼였다. 기원전 8세기경 북쪽 지방의 이스라엘 왕조는 아시리아의 침입을 받아 멸망하고 이제 다윗 왕의 후손이라 자칭하는 유다 왕조는 혼자 고립되어 주변 세계와 맞서야만 했다. 그래서 기원전 7세기 유다 왕 요시아는 유일신에 대한 숭배를 강화시킴으로써 주변 세계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고 권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서의 성립 배경이 된다. 비록 이 책은 사소해 보이는 부분에서 성서의 오류를 지적하고 인류에게 감동을 주는 성서의 큰 사건들을 실망스럽게 만들지만, 그래도 인간 역사에 등장하는 신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인문학적 도서가 될 것이다. 성서의 사실성, 고대 이스라엘의 출현과 패망, 유다와 성서적 역사의 창조, 성서적 이스라엘의 미래, 이렇게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한글**

유병수 마음산책 편집부